

타코마·벨뷰 지역과 국제교육협력

美 워싱턴주 방문 서거석 교육감, 국제교류수업 관련 정책 논의

서거석 교육감이 미국 워싱턴주를 방문해 벨뷰·타코마 지역과의 국제교육협력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현지 시각 5일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조슈아(Joshua) 교육장, 패트릭(Patrick) 국제교육국장 등 국제교류수업에 관한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슈아 교육장이 타코마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양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하고자 제안, 이에 서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해외연수 정책을 소개하고, 두 지역 학교 간 국제교류수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 실천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미국 10대 칼리지로 선정된 바 있는 피어스대학(Pierce College)

을 방문해 줄리(Julie) 총장 및 관계자와 학생 어학연수 및 유학에 관한 협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은 대학 측에 연수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을 요청하고, 연수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학생의 안전 대책 관련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협의에 배석한 한국 유학생과도 유학의 계기, 학과 공부, 향후 진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향후 외국에서 공부할 꿈이 있는 전북 학생들의 유학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서 교육감은 7일 워싱턴주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지역인 벨뷰(Bellevue) 교육지원청을 찾아 켈리(Kelly) 교육장과 학교폭력예방, 교권 보호, 협력성장 정책 등에 관한 협의를 했다.

이에 켈리 교육장은 벨뷰 지역의 학교가 전북 지역의 학교와 국제교류수업에 함께 하길 희망했다.

이후 이종언어수업을 진행하는 징메이(Jing Mei) 초등학교를 방문해 동메인 탄(Dongmei Tan) 교장으로부터 이중언어수업 도입 배경과 운영실태를 청취했다.

이 외에도 학습 부진과 관련해 학년에서 요구하는 학력을 갖추지 못하는 학생의 관별과 지원 사례를 질의하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서 교육감은 벨뷰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 방문을 마친 후 서북미 한국 학부모 협의회 김경열 회장과 임원들을 만나 워싱턴주의 다양한 교육현안과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청이 도입하려는

IB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장점,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학생 평가 방법, 학생 해외연수 등에 관한 의견을 경청했다.

서 교육감은 워싱턴 한미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미동포들에게 방문 목적 및 성과, 학생 해외연수,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학력 신장 등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서 교육감은 "이번 방문으로 국제교육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해외 학교의 국제교류수업 참여 유도, 해외 대학과의 학생 및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 약속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청의 글로벌 교육네트워크를 강화하고, 2024년에 추진될 해외연수와 국제교류의 탄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3~8일 미국 워싱턴주교육청, 타코마·벨뷰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방문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미국 워싱턴주를 방문해 벨뷰·타코마 지역과의 국제교육협력을 이끌어 냈다. 사진은 지난 5일(현지시간) 타코마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조슈아 교육장과 패트릭 국제교육국장 등 국제교류수업에 관한 정책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과 7일 벨뷰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켈리 교육장과 학력신장 정책 등과 관련한 협의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오른쪽).



서거석 교육감이 미국 워싱턴주를 방문해 벨뷰·타코마 지역과의 국제교육협력을 이끌어 냈다. 사진은 지난 5일(현지시간) 타코마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조슈아 교육장과 패트릭 국제교육국장 등 국제교류수업에 관한 정책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과 7일 벨뷰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켈리 교육장과 학력신장 정책 등과 관련한 협의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오른쪽).

선박·해양 의장설계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개발

국립군산대, 310억 규모 2027년까지 수행 가상현실 기반 설계 협업 시스템 개발 등 2개

국립군산대학교 조선해양기자재역량강화센터(센터장 조선공학과 문병영 교수)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TIP)이 지원하는 '선박·해양의장설계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선박·해양 의장설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설계 노후가 부족한 저경력자들도 효율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저감 시킬 것으로 선박 원가의 70%가 결정된다고 하는 설계단계에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310억원 규모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수행될 계획인 이번 사업은 국립군산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선정됐고 총 4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돼 추진하게 된다.

국립군산대는 2개의 세부 과제 △가상현실 기반 공공간·협업업체인 설계 협업 시스템 개발 △디지털 지식 활용 선박 의장설계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참여해 연구를 수행하게 될 계획이다.

국립군산대 산학협력단 조선해양기자재역량강화센터는 센터 설립 후, 선박 및 해양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연구 성과를 꾸준히 창출해 오고 있는 전문연구센터로서 전북지역 조선해양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군산=김광근 기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원 역량 강화

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원 미래역량 혁신연수·워크숍 운영 신산업분야 재구조화 마친 타지역 학교 등 방문... 총 10회

전북도교육청은 직업계고 교원 미래역량혁신연수 및 워크숍을 총 10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원 및 취업지원관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내년 1월 4일까지 서울, 경기·충청, 부산·경남 등에서 이뤄진다.

이는 2023년 전북글로벌특성화고로 선정된 도내 10개 직업계고의 교명 변경 및 학교 개편을 통해 전북 직업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산업분야로 성공적으로 재구조화를 마친 선진 학교 방문을 통해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등 신산업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을 방문해 산업현장의 변화를 직접 느끼며, 직업교육의 혁신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주요 업무 담당 교사와 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자 간의 업무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미래교육 여는 수업혁신 발표대회' 15일 개최

7개 팀 본선 경연 우수 수업사례 공유

'2023년 미래교육 여는 수업혁신 발표대회' 본선 경연이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 전주대메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전북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이 주관한다.

지난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습 능력과 수준,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실천한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에 초·중·고 교사들의 수업혁신에 대한 의지와 실천 과정을 보고서로 제출받아 서류 심사, 학교 현장 실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된 7개 팀, 14명의 교사가 참여한다.

본선 경연에 오른 7개 팀은 이날 수업동영상 심사, 경연 발표 심사, 참관객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수업혁신 대상 2팀, 우수수업 5팀을 선발, 수업연구 지원금과 상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본선에 오른 정재영 교사는 "이번



2024학년도 대입 수능 성적표 확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인별 성적 통지표가 교부된 지난 8일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기회를 통해 나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본선 경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수업에 대해 늘 고민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

호원대 인당도서관 교육학술정보원장상

호원대학교 인당도서관이 지난 7일 로얄 서울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학술정보 및 공개강의 활성화 시상식에서 2023년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공유·유통 기여도 평가 결과 B그룹 종합목록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평가 항목은 학술정보 공유·유통의 기반이 되는 종합목록, 상호대차, 원문 유통 등으로 3개 A, B, C 그룹으로 나눠 A그룹은 3년차 박사논문 수록 대학, B그룹은 일반대학교, C그룹은 전문대학 등으로 구분해 이뤄졌다.

이에 호원대학교 인당도서관은 B그룹 중 사서들이 가장 중요히 기록하는 종합목록 부문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전북창업기술혁신대진서 수상

호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7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진행된 '2023년 전북창업기술혁신대진서'에서 입주기업인 (주)케이스머티리얼즈와 (주)경일그린텍이 창업유공자 부문에서 각각 도지사상과 군산시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케이스머티리얼즈(대표 권영주)는 환경과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친환경 건설재료 전문기업으로 ESG 경영을 선도하는 ACD-MENT 뛰어난 기술력과 매출 다각화를 이뤄 기업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주)경일그린텍(대표 이창훈)은 슈퍼패시터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에너지 저장장치 기업으로써의 국내외에 사업화하고 있는 우수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의 발전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하며,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았다. /장은성 기자

'반도체 분야 진로를 위한 준비'

전북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토크 콘서트

전북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단장 김진수)이 반도체 분야로의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과 학생들 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북대 뉴실크로드 7층 동행홀에서 (주)옵토웬 솔루션 연구소장과 PJP Tech 최범호 CTO, 국제엘렉트릭코리아 양운성 인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반도체 기업 대표들은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반도체

진로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어 열린 토크콘서트에서는 (주)옵토웬, PJP Tech, 국제엘렉트릭코리아,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등이 진로 설정을 위한 학생들의 고민을 직접 청취한 후, 반도체 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송명섭 학생(기계설계공학부 2년)은 "기업과 연구소 임직원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반도체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우리대학이 정부 반도체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돼 관련 분야 우수인재 양성에 나서는 만큼 우리들이 반도체 분야로 진출하는 폭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탄소중립 실천·농생명 식품산업 활성화'

우석대 과학기술포럼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지난 8일 완주 상판리조트 세미나실에서 2023년 탄소중립 실천과 농생명 식품산업 활성화 과학기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상용 식품영양학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남지숙 지구스담이 대표가 '저탄소 식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실천 방안'을, 차연수 전북대 교수가 '홍 발효식품의 건강 기능성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박미라 탄소기반에너지나노소재융복합연구소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활용기술과 웰스케이 산업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오석홍 진천캠퍼스 부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주 전라북도 농



업기술원 국장과 오병택 전북대 환경생명자원대학장, 양갑식(한의예과) 교수, 채수완 전북대 기능성식품삼시협치원센터장이 발제한 주제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오석홍 진천캠퍼스 부총장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기후 스마트 탄소중립의 실현 전략을 모색할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업단은 기후 스마트 탄소중립 실천과 농생명 식품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기술 실용화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